

# 말 많고 탈 많은 FTA, 도대체 그게 뭐길래?

## -FTA의 개요 및 추진현황-

지난 4월 1일자로 한국과 칠레간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됐다. 이를 계기로 칠레 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국, 미국 등과의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FTA의 체결로 외국산 값싼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농산품, 나아가 국내 인삼, 약초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의 개요 및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1. FTA의 개요

#### 1 FTA의 용어 정의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번역된다. 이는 국제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 협정을 뜻하며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이

다.

이 F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그 하나는 유럽의 EU(European Unions)와 같이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미대륙의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

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 2. FTA와 WTO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WTO의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 중심의 특혜무역 체제이다.

즉, FTA 하에서는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 3.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의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이다. 즉, FTA 체결로 인하여 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반면, 회원국

과 비회원국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 4. 최근 동향

FTA는 WTO가 추구하는 다자 합의 과정의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WTO의 다자체제는 회원국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속도가 느리고, 개별 국가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와 미국 등이 중심이 되어 FTA가 체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여타국들의 불안감이 그 추진 속도를 가속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일면도 없지 않다.

그러하여 현재 세계 통상질서는 WIO 중심의 다자 체제(Multilateralism)와 FTA 중심의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양대축이 동시에 형성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II.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1990년 대 초반, 북미지역에서 NAFTA가 추진될 당시부터 FTA에 대한 정책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UR의 농산물 개방을 둘러싼 국내 사정으로 그 논의가 한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일부 정책연구기관 등에서 다시 FTA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IMF

국가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공식 의결하였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해수부, 농림부, 재정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관련기관 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추진을 결정하였고, 1999년 12월부터 6차례 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금년 2월 16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 및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들과의 추진 경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 한-일 FTA

1999년에 일본과 FTA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한일 양국은 FTA 비즈니스포럼을 결성하여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FTA 추진방향을 논의하였고, 양국은 2002. 3. 22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이래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한·일 간에 이같은 FTA가 체결될 경우, 상품의 교역 및 유통, 투자, 환경, 인력이동 등 전 산업분야에 걸친 진입장벽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산지 규정, 검역제도 등 수출입 관련 제도도 상호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 한-중 FTA

중국은 일본의 FTA 추진에 대응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은 2010년까지 FTA 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나,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한-일 FTA, DDA 협상, 미국 중심의 FTA 결성 등에 따라 중-아세안 FTA가 목표한 기한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양허안에 대한 아세안 내부의 시각차, 중국의 고관세구조 등을 고려할 때, 중-아세안 간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 양허안을 바탕으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FTA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정치, 역사적 문제 외에도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가 주된 이유이며, 일본에 대한 견제와 동아시아 FTA

주도권 확보 및 경제적 이유 등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 □ 한-미 FTA

미국의 경우에는 칠레와의 FTA 및 FTAA의 타결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TPA)의 부여로 동아시아와의 FTA 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와 한국을 가장 적합한 FTA상대국으로 평가한 바 있으나 미 업체에서는 한국과의 FTA 필요성을 인정하나, 한국의 FTA 추진 및 협정이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칠레 FTA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아울러 일본, 아세안과의 FTA논의가 가속화 될 경우 미 행정부와 업체도 한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 한-싱가폴 FTA

FTA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전환 및 다수 FTA 확보를 통한 FTA 추진 정책의 대내외 과시 등을 위해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우려가 적은 싱가포르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싱가포르의 인구와 내수시장의 규모, 관세를 포함한 개방적인 통상 시스템, 산업구조상의 경쟁관계 등으로 볼 때, 양국간 FTA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의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나, 서비스 및 투자면에서 중장기적 긍정적인 측면과 선진개방에 대한 학습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 한-멕시코 FTA

멕시코는 북미와 중미를 연결하

### FTA란?

국제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양국간 특혜무역 협정이다

는 곳에 위치하여 이들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수출대상지역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FTA 체결시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는 32개 국가와 10여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일본, 싱가포르와도 추진중이다. NAFTA, 맥-EU FTA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2003년 이후에는 우리 수출품의 경쟁조건 악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마길라도라(무관세 보세가 공지역)가 2001년부터 폐지되면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규투자에서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FTA를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 한-아세안 FTA

2004년 4월 19일,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를 진행중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아세안이 최근 열린 공동연구 2차 회의에서 오는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협상 개시에 합의한 뒤 협상 마무리 전에 자유화에 대한 기본협정을 맺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식의 협정 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FTA 절차규정에 따라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협상 개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한·아세안은 또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투자 규제 완화, 상호인증협정 체결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및 협력강화가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양쪽은 오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이에 싱가포르에서 제3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 III. 한·중, 한·중·일 FTA 전망 및 의의

한·중·일 삼국은 지리적 근접

성 및 경제구조 상의 상호 보완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 및 영토분쟁, 이념상의 차이, 지역패권 경쟁, 경제적 격차 등으로 북미나 유럽과 같은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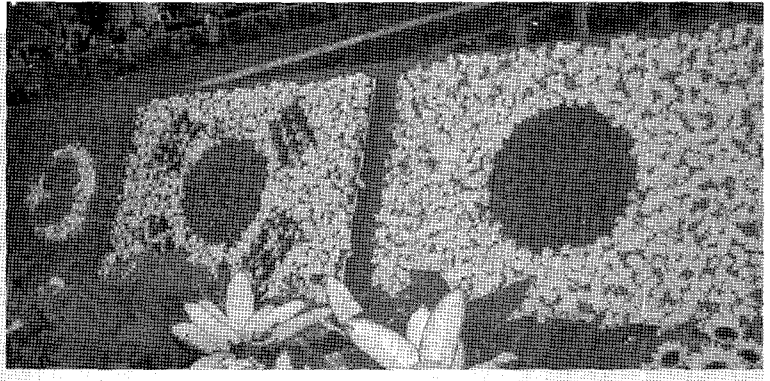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 서로 인접국과의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그 추진 방향과 대상 범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중국의 시장경제 정착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한-일 FTA를 먼저 체결한 이후, 일-중 FTA를 추진함으로써 일본 중심의 지역경제통합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처음부터 3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한-중-일 FTA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기왕의 한-일 FTA 논의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한-중-일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찌하든,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머지 않아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일 FTA 논의가 무르익게 되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일본이 한-일 FTA 추진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이고, 한-일 FTA에 자극을 받은 중국이 한-중, 일-중 FTA 체결에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곧 바로 한-중-일 FTA로 진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 3국간 협상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양국 간의 협상보다는 훨씬 더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3국 간의 이러한 경제공동체 구성은 각 국의 경제발전 단계, 인·물적 자원의 차이에 다른 상호 보완성에 비추어 한·중·일 모두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EU 및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블록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고 동북아시아를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3국이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한-중 내지는 한-중-일 FTA가 우리 나라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에도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중국시장을 우리

가 별다른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의를 갖게 된다.

중국을 현재 WTO 가입과 함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세계경제체제에로의 편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그 동안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13억이 넘는 인구의 소득증가가 내수진작을 불러일으키게 될 경우, 장차 엄청난 우리의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03년 2월에 출범한 한국의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을 국정운영 지표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아시아 지역 공동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공포한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일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의 무역자유화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하되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FTA나 AFTA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